

서울대학교 國樂科 30周年記念 基調講演

國樂教育의 搖籃

張 師 勛

(서울대학교 名譽教授 · 藝術院會員)

《目 次》

- | | |
|---------------|--------|
| 1. 國樂學科 創設 | 3. 맺는말 |
| 2. 國樂學科의 基本教育 | |

1. 國樂學科 創設

大學校에서 國樂學科를 처음으로 創設한 것은 德成女子大學이다.

釜山에서 還都한 이듬해, 즉 1954년 德成女子大學에서는 音樂科를 新設하고, 國樂部에 30名, 洋樂部에 30名을 各各 모집하였다.

當時 趣旨文에 의하면,

“洋學理論의 韓國的 攝取와 國樂에 있어서의 民族的 要素의 發見——이것이 基盤이 되어 한걸음 더 나아가 世界性을 띤 韓國民族音樂이 創造되어야 할 것을 우리 民族이 다 같이 渴望하고 있는 이때 이 聖스러운 課業을 解決코자 本大學 音樂科에서는 國樂部와 洋學部를 두어 國樂과 洋樂의 理論 및 實技를 兼하여 修練시키는 韓國最初의 特色있는 音樂科를 創設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趣旨下에 專攻과 副專攻 및 敎科 科目이 짜여졌다.

器樂專攻: 거문고 · 가야고 · 洋琴 · 短簫

聲樂專攻: 歌樂(歌曲 · 歌詞 · 時調)

副專攻: 民俗舞蹈

國樂部長: 張師勛

洋樂部長: 金光洙

이와같이 큰 뜻을 갖고 社會的인 支援下에 國樂教育의 첫 발을 내 디디었으나, 當時 群小大學에는 學生定員을 채우기조차 어려운 時期였기 때문에 創設 3년만에 廢科가 되었고, 1954년부터 이것도 처음으로 中 · 高等 · 大學 國樂競演大會는 1959년까지 繼續 開催하여 6回

로써 끝났다.

그런 동안 서울大學校 音樂大學에서는 國樂科 新設의 意志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59년의 일이다.

이 해 1월 24일 서울大學校 音樂大學學長 玄濟明 博士 主宰下에 南山 外交俱樂部에서 國樂科 新設에 관한 全般的인 意見交換이 있었다.

이 때 參席者는

玄濟明(서울大 音大 學長)
李惠求(서울大 音大 教授, 外遊中)
金聖泰(서울大 音大 作曲科長)
全鳳楚(서울大 音大 敎務課長)
金學相(서울大 音大 學生課長)
成慶麟(國立國樂院長)
張師助(德成女大 國文學科長)

등이었고, 이 모임에서 議論된 것은

國樂科 專攻에 관한 일
敎科目 設定에 관한 일
資格에 관한 일
卒業 後의 職業補導에 관한 일

등이었다.

國樂科長은 李惠求 博士였고, 新入生 50名을 募集하였다.

1959년 6월 29일자 大學新聞에는 다음과 같은 鼓舞的인 記事로, 國樂科 新設의 意義와 더불어 國樂 專攻生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여기 20代의 靑年들이 저마다 거문고를 안고 있다.……그들은 우리가 代代로 물려받은 民族遺産인 國樂을 學理的으로 體系化하고, 發展시키려는 가슴 부푼 보람을 안고 音樂大學 國樂科에 들어온다.

狂舞하는 世紀末의인 「재즈」의 喧囂속에 한 떨기 百合과도 같이 淸楚한 民族 固有의 精神을 이어 나갈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다.”

이와같이 美化되고 있지마는 事實 國樂科를 이끌어 나아가고, 國樂敎育을 施行함에 있어서는 남모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專攻도 一年은 거문고·가야고·피리·대금·해금·단소를 약 2개월씩 돌리면서 배우게 한 다음, 2學年 때부터 專攻을 確定하는 方法을 擇할 수 밖에 없었다.

그 當時의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國樂 敎育의 틀을 다지고, 成功시킨 것은

그 때 指導教授의 사랑과 渾身の 熱情과 使命感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믿는다.

2. 國樂學科의 基本教育

國樂科의 教育方針은 隨性的이고 模倣的이고 非學問的인 舊殼을 벗어나 獨創的이고, 學究的인 學者와 作曲家와 演奏家를 기르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雅樂만 알고 民俗樂을 度外視한다든지 民俗樂만 하고 雅樂을 멀리한다든지 理論의 뒷받침이 없는 國樂人이 있다면 國樂을 어떻게 빛내고 發展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點을 스스로 開拓해 나갈 수 있는 指導的인 人材를 育成하기 위하여 設置한 것이 國樂科의 教育 方針이다.

따라서, 國樂 理論 科目은 勿論, 洋樂 理論까지도 履修해야 하고 피아노 實技도 兼하여 배우게 함으로써 活動의 幅을 넓히기로 하였다.

한편, 理論 專攻者는 古樂譜를 解讀하는데 필요한 거문고 實技를 副專攻으로 擇하게 하고, 一週일에 1회씩 輪番制로 自己 專攻 實技의 公開演奏와 함께 그 曲에 대한 理論的인 說明을 하도록 하였다.

또, 卒業 演奏에는 반드시 正樂 중에서 1曲, 散調 또는 시나위, 創作曲 1曲을 演奏하도록 規定하고, 月 1회씩 學術研究發表를 勸獎하고, 1961년부터는 年 1回 國樂科定期演奏會를 갖기로 하였다.

卒業 演奏에 創作曲의 演奏가 必須的이기 때문에 創作曲을 의뢰해야 하고, 學術的인 理論 說明을 할 義務가 賦與되었으니, 理論書를 읽은 다음, 스스로 研究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國樂科 初期에 國樂研究會(1960년 4월까지의 名稱은 國樂科會였음)의 發表 內容과 創作曲 一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國樂研究發表會

第 1 回發表會(1959. 11. 30)

權五聖: 短篇의 裝飾音—그 用例를 中心으로—

第 2 回發表會(1959. 12. 14)

權五聖: 短篇와 피리의 裝飾音比較—打令만을 가지고—

第 3 回發表會:(?)

(曹偉敏? 金溶鎮?)

第 4 回發表會(1960. 4. 16)

張師勛：雅樂曲名の 再檢討

第 5 回發表會：(金溶鎮, 中靈山の 旌律進行法?)

第 6 回發表會：(1960. 5. 20)

李惠求：韓國音階 測定에 關한 問題—韓國正樂院의 羅元和의 韓國正樂音의 絶對高度의 測定에 關한 批判—

第 7 回發表會(1960. 6. 5)

宋芳松：游藝志 笙簧譜 解讀 및 그에 나타난 紫芝羅葉

第 7 回研究發表會(1961. 6. 28)

金溶鎮：中大葉(心方曲)

第 7 回研究發表會(1961. 11. 28)

李秉元：散調 장단의 分析

2) 創作曲

定期 演奏會 때 發表한 創作曲 중 一部分 例로 든다.

① 第 1 回 國樂定期演奏會

1961. 11. 18 國樂演奏室 落成記念을 兼함.

{ 作曲者：Lou Harison
{ 曲 名：管絃樂, '새唐樂無窮花'

② 第 2 回 國樂定期演奏會

日 時：1962. 7. 2

{ 作曲者：金溶鎮
{ 曲 名：合奏曲, '合奏曲第一番'

③ 第 3 回 國樂定期演奏會

日 時：1962. 10. 31

{ 作曲者：李成千
{ 曲 名：大笏獨奏曲, '清聲자진한일 主題에 의한 變奏曲'

{ 作曲者：李秀子
{ 曲 名：合奏, '피리를 위한 合奏曲'

④ 第 4 回 國樂定期演奏會

日 時：1963. 11. 1

{ 作曲者：申洪均
{ 曲名：'피리獨奏曲'

{ 作曲者：李成千
{ 曲名：'細樂을 위한 合奏曲，

{ 作曲者：鄭回甲
{ 曲名：가야고 二重奏，'두대의 가야고를 위한 小品'

⑤ 第5回 國樂定期演奏會

日時：1964. 4. 5

{ 作曲者：徐佑錫
{ 曲名：合奏曲，'蟄居'

⑥ 第6回 國樂定期演奏會

日時：1965. 11. 25

{ 作曲者：李成千
{ 曲名：絃樂二重奏，'重奏曲 第6番'

{ 作曲者：趙在善
{ 曲名：大笏協奏曲，'깃대를 위한 시나위'

{ 作曲者：金溶鎭
{ 曲名：絃樂三重奏，'念佛도들이變奏曲'

{ 編曲者：韓萬榮
{ 曲名：合唱，'太平歌'

⑦ 第7回 國樂定期演奏會

日時：1966. 11. 3

{ 作曲者：李成千
{ 曲名：獨唱，'歌曲「이야기」'

{ 作曲者：金興教
{ 曲名：合奏，'管·絃·打樂器를 위한 二章'

{ 作曲者：趙在善
{ 曲名：가야고協奏曲，'가야고를 위한 시나위'

{ 作曲者：金溶鎭
{ 曲名：合奏，'合奏曲 第二番'

- { 作曲者：金興教
曲名：奚琴獨奏曲，‘奚琴과 杖鼓를 위한 二重奏’
- { 編曲者：韓萬榮
曲名：合唱，‘騷擾’

〈以下 省略함〉

3. 맺는 말

以上 본 바와 같이 참신하고, 活氣있고, 明哲한 新銳 國樂人들의 理論 確立과 創作 活動에 의하여 不過 30년만에 十四個 大學校에 國樂科가 設置되고, 每年 4·5百名에 이르는 國樂 指導者를 輩出하고 있는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고 있으며, 專任講師以上の 大學 教授만도 八十名을 肉迫하고 있다.

가야고 散調 한 曲으로써 平生을 보내고, 正樂 몇 曲을 배워가지고 大家로 自處하는 時代는 이미 지나 갔다.

既成 國樂人들은 解放後 40년동안 하나도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더우기, 傳統의 眞隨를 찾아서 간직해야 할 既成 國樂人들이 그러한 本質조차 잃어가고 訛傳에 訛傳을 거듭한다면, 批判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새世代 指導者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하여 두고자 한다.

첫째, 放送은 大衆을 팔고 一部 國樂人은 民衆을 팔아 國樂을 格下시키고 있는 現實에 同調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毅然한 態度로 本分을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 韓國의 政治·經濟·文化 등 모든 面에서 國民을 啓導하고 바른 政策을 펴야할 所謂 最高 政治指導者라고 自處하는 사람들이 代表的인 倭色歌手의 소리마당에는 參席하여 敬意를 表하면서 國樂의 演奏會場은 外面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墮落된 現情勢를 直視하고 우리는 傳統守護와 그 發展을 위하여 더욱 奮發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얼마前, 一部 大學 國樂教授들이 流行歌手와 어울려 流行歌를 協奏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教授로서의 品位維持를 스스로 格下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그러한 行動은 다른 教授에게도 累를 끼치는 結果를 가져온다는 점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네째, 國樂의 普及, 國樂의 低邊擴大를 부르짓는 일은 좋으나, 이러한 運動은 이미 先輩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이룩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젊은 指導層에서 해야할 일은 國樂의 普及云云보다 한걸음 나아가, 國樂 教育을

어떤 方法에 의하여 施行하는 것이 效率的이나 하는데에 觀心을 갖고 研究해야 할 줄 안다.

예를 들면,

- ① 幼稚院 어린이나, 國民學校 低學年
- ② 國民學校 高學年
- ③ 中學生
- ④ 高等學生

등으로 區分하여 이들에게 무슨 曲을 어떻게 아렌지하여 그들이 興味있게 받아들이고, 즐겨 부르도록 하느냐 하는 現場 教育方法을 研究하여 具體的인 教案을 提示하는 것만이 時急한 當面課題라고 하겠다.

다시 되풀이 하거니와 國樂의 普級, 國樂 教育의 必要性을 입으로 아무리 외쳐 보았대야 그것은 口頭禪으로 끝날 것이다.

國樂科도 滿 30이 넘었으니, 이제부터는 오직 實踐에 옮길 수 있는 教案研究의 글과 冊子가 다투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國樂이 蘇生하고 發展하는 길은 各級 學校에 있어서의 教育如何에 따라 그 成敗가 가려 지리라고 確信한다.